

■ 자격명: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 소개말 (시험에 응시하게 된 동기,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서술)

[변리사 시험 응시 동기]

과기원에 다니면서, 수학, 공학 등의 분야 위주로 공부하였지만, 법학에 관한 호기심과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변리사 시험 제도에 대해 접하게 되었고 이공계 전공을 살리면서 법에 대한 전문성도 키울 수 있는 시험인 것 같아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한, 평범하게 취업하거나 대학원가는 것보다, 학교외의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과 실력을 공정하게 경쟁하여 보고, 성취감을 얻는 경험을 통해, 제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생각으로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

2015 1차 합격 2차 불합격 (2015년 2학기 복학)
2016 2차 불합격 (2016년 2학기 복학)
2017 1차 합격 2차 불합격 (2017년 2학기 복학)
2018 2차 합격 (2018년 1학기 복학, 졸업)

2015년도 첫 1차 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험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험 시작 시점에, 학교의 남은 학기가 4학기여서, 복학과 휴학을 병행하며 공부했습니다. 2017년 1학기 휴학을 끝으로 더 이상 휴학을 쓸 수가 없어서, 2017년도 2학기+2018년도 1학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였습니다. 학교 수업, 인턴, 졸업 준비도 해야 했기 때문에, 효율과 스트레스를 특히 신경쓰면서 공부하였습니다.

■ 차수별, 과목별 준비방법 (공부한 방법, 합격 득점 요인 분석 등을 서술)

[전반적인 공부 방법]

1,2차는 공부 방법이 다르지만, 공부의 큰 틀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차는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 절차의 세세한 암기, 판례 결론 암기 등을 위주로 공부하고, 2차는 법 구조와 취지 이해, 논술에 필요한 판례 정리, 논술 답안지에 현출시키기 위한 연습 등을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특허2차)

절차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절차 속의 판례를 통해 판례의 존재 이유와 판시 취지를 이해합니다. 적절한 사안해결 연습이 필요하고, 특허는 암기량이 많아서, 백지를 펼쳐놓고 책에 있는 내용을 떠올리며 그 백지에 적는 식으로 암기하였습니다. 암기를 기반으로 문제를 구해 풀어보아야, 사안해결 연습이 될 것입니다.

(상표2차)

상표는 판례 위주로 공부하였습니다. 판례집으로 판시취지, 전후 상황, 답안에 현출하기에 적절한 문구, 답안에 쓸 목차를 생각하며 판례집에 표시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절차를 암

기하고, 문제를 구해 풀어보면서, 판례 공부 방향을 잡고, 다시 표시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많은 문제를 구해서 풀어보기 보다는, 판례 하나하나의 이해, 정리에 더 신경써야 할 것 입니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도 이해량, 암기량이 많은 과목이므로, 처음에는 빠른 회독, 느린 회독, 정독의 순서로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해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답안지 쓰기에 무리가 없을만큼 이해, 암기가 되었다고 생각되면, 문제를 통해 논점도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답안 작성시에는, 정형화된 틀을 먼저 익히고 다음에 본인만의 틀을 엮어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그 두 틀을 적절하게 섞어서 기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회로)

회로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난이도 낮은 문제로 시작해서 난이도 중간 정도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계산이나, 개념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되면, 기출문제와 새로운 유형,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를 풀 때 정형화된 풀이 순서(검산 포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자격 취득 후 진로 (자격을 취득한 후 현재 혹은 예정 진로에 관해 서술)

[현재]

현재는, 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며 특허업무를 배우고 있습니다. 시험으로 공부했던 것과 실무는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또한, 외국어는 생각보다 훨씬 변리사 업계에서 중요한 요소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변리사들이 꾸준히 외국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정 진로]

변리사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지금하는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도 하고 싶습니다. 학문, 어학 등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유학, 대학원 등의 진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기타 조언 등 (수험 기간 중 하루 일과, 스트레스 또는 슬럼프 극복 방법, 응원의 한마디 등을 서술)

수험 기간의 하루 일과는 자세히 기술하지 않아도 모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신만의 숨구멍은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악 감상, 축구, 영화 감상 등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수험 생활 초반에는,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공부한적도 있었지만, 긴 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생활방식은 결코 스트레스 관리에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수험생분들, 비록 합격 수기를 길고 자세하게 쓰지는 못했지만, 꼭 필요한 말들은 써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모두 잘 극복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